

지정독서 · 2022년 5월 7일 · 6명명

어서 오세요, 휴남동 서점입니다

덜 벌더라도, 나답게 사는 시간

황보름의 『어서 오세요, 휴남동 서점입니다』로 5월 정규 모임에서 만났습니다. 영주와 민준이 저마다의 자리를 찾아가는 이야기에서 시작해 삶의 균형, 명상, 마음을 전하는 법까지, 토요일 아침 두 시간이 넘게 이어진 따뜻한 모임이었습니다.

소설은 왜 필요할까	내 정서에서 벗어나 타인의 정서로
영주와 민준	덜 벌더라도 나를 찾는 삶
균형과 루틴	하나라도 더, 그러나 지치지 않게
생각을 쉬게 하는 것	명상, 그리고 화가 날 때의 거리 두기

황보름의 『어서 오세요, 휴남동 서점입니다』로 5월 7일 토요일 아침, 정규 모임에서 만났습니다. 도서관에 예약해도 늘 대여 중이라 구하기 힘들다는 말이 나올 만큼 인기 있던 책. 따로 진행 자료 없이, 책을 읽은 그대로의 감상으로 시작해 각자의 삶의 속도와 균형까지 이야기가 이어졌습니다. 끝나고 톡방에 "마음 따뜻해지는 아침이네요"라는 말이 남은 모임이었습니다.

소설은 왜 필요할까

첫 감상부터 솔직했습니다. 힐링 소설인데 에세이를 길게 풀어놓은 것 같고, 초반엔 재미있었지만 뻔하고 쉽게 읽혔다는 이야기. 작가가 개발자 출신이라 에세이를 많이 썼을 것 같았는데, 위로하는 문장이 많아 딱 그 느낌이었다고요. 『아몬드』를 인상 깊게 읽었다며, 소설은 발제 콘셉트 잡기가 참 어렵다는 고백도 나왔지요.

그런데 이 책 덕분에 "나는 왜 소설과 멀어졌다가, 왜 다시 읽게 됐지?"를 생각해 봤다는 말이 오래 남았습니다. 소설은 나만의 정서에서 벗어나 타인의 정서에 다가가게 해 준다는 것. 이 책이 소설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작은 힌트를 줬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영주와 민준

열정적으로 달리다 모든 걸 내려놓고 서점을 연 영주. 돈은 덜 벌더라도 시간이 여유로운 삶, 이른바 '다운시프팅'을 고른 사람입니다. 그런 영주가 안정되면 언젠가 내면의 욕구가 다시 올라와 일상이 지겨워지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도 나왔습니다. 부모와의 관계도, 결혼도 쉽지 않았던 영주가 자기를 찾으려 애쓰는 모습에 하고 싶은 것과 해야 하는 것 사이의 균형을 조금 더 맞췄으면 어땠을까 하는 이야기도요.

서른 살 바리스타 민준에게 마음이 간다는 분도 있었습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아직 고민하는 친구들이 주변에 여전히 있는데, 민준이 커피를 내리고 원두 공장을 오가며 조금씩 자기 자리를 찾아가는 모습이 오래 남았다고요. 영주와 승우 사이의 머뭇거림을 두고는, 단칼에 거절하지 않은 데는 복잡 미묘한 감정이 있었을 거라는 해석도 나왔습니다.

균형과 루틴

삶의 균형을 어떻게 잡고 있는지로 이야기가 넘어갔습니다. 하루 30분 간단한 운동만으로도 몸을 유지하고, 그 30분 안에서 "하나라도 더" 하자는 나만의 규칙을 만들었다는 분. 연초에 균형 잡을 것들을 1번, 2번, 3번 적어 두고 월말에 몇 개나 채웠는지 맞춰 본다는 분도 있었습니다. 책을 읽는 이유도 삶을 고루 보기 위해서라고요.

반대로, 루틴에 너무 매여 사는 사람들을 보면 가만히 있어도 될 때조차 여유가 없어 보인다는 말도 나왔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그만두는 때는 언제쯤 올까?"

책 속 동네 서점 이야기에서 카페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오래 못 앉게 일부러 의자를 불편하게 둔다는 이야기, 커피가 아니라 공간을 판다는 브랜딩 이야기까지. 휴남동 서점 같은 공간이 우리 동네에도 있었으면 하는 마음이 함께 묻어났습니다.

생각을 쉬게 하는 것

이 책이 준 가장 큰 선물은 작은 것에서도 행복을 느끼게 해 준 것이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가 명상으로 이어졌습니다.

생각이 끊이지 않는 하루 속에서, 우리는 닥치지도 않은 미래를 미리 걱정합니다. 그런데 생각만으로 답이 나오는 일은 많지 않고, 오히려 생각에 매몰되기 쉽지요. 그래서 생각을 잠시 멈추는 것, 그게 명상이라는 이야기. 화가 날 때 호흡에 집중한다는 분, 명상하는 동안은 차분한데 막상 현실에서는 잘 안 된다는 솔직한 분, 화가 나면 무조건 자거나 '분노의 달리기'를 한다는 분도 있었습니다.

그건 회피라서 나중에 더 커질 수 있다는 말도 나왔고, 다툴 때는 일단 그 자리를 벗어나 흥분을 가라앉힌 다음 다시 이야기해야 한다는 말도 나왔습니다. 같은 마음을 다루는 방법이 이렇게나 다르다는 걸 확인한 시간이었습니다.

마음을 전하는 법

괜찮은 사람은 많은데 왜 다들 먼저 움직이지 않을까 하는 안타까움도 나왔습니다. 상대가 내 마음을 먼저 알아주느냐보다, 내가 어떻게 전해서 그 사람이 알게 하느냐가 관건이라는 것. 마음을 전하는 데에도 용기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남은 이야기

독서 모임이 처음이라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감이 없었는데, 용기 내서 찾아왔다는 분이 있었습니다. 일하는 분야가 다른 사람들이 같은 책을 읽고 다른 생각을 나누니 시야가 넓어질 것 같다고요. "모임 덕분에 억지로라도 한 권씩 읽게 되는 게 좋다, 연말이 되면 그게 보람이 된다"는 말에도 여럿이 공감했습니다.

소설이 결국 우리가 죽음을 향해 가는 삶을 들여다보게 해 준다는 이야기, 다음엔 사회과학 책도 추천해 달라는 부탁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책미사에 함께하고 싶다면

주로 토요일 밤 9시, 줌에서 만나고 가끔은 직접 만납니다. 완독 못 해도, 듣기만 하는 청강도 괜찮아요. 첫 참여는 무료, 그다음부터 모임당 5,000원입니다.

- 다음 모임과 신청: https://espada4897.github.io/espada/
- 이 책 페이지:https://espada4897.github.io/espada/book-cf17bc91.html